

四攝法의 사회복지실천적 含意

이혜숙
동국대학교

I. 연구의 목적

불교사회복지를 이론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지 대략 30년이 되었다. 그동안 연구의 결과물들은 대개 불교의 사회복지 관련사상을 조명하는 것이었고 그밖에는 불교계 사회복지사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것이었다. 조사보고에 의하면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은 약 480 개소에 달하고, 시설 종사자의 수는 6,5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¹⁾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빠르게 늘어난 불교계 사회복지 현장에 비추어 볼 때, 그 고유성을 입증할 수 있는 독창적인 프로그램

1)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불교사회복지기관 실태조사 분석」 『불교사회복지 편람』(서울: 同 재단 불교사회복지연구소, 2006), 12쪽; 23쪽.

이나 효과적인 서비스 기술의 개발이 매우 아쉬운 실정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최근의 한 연구²⁾에 의하면, 사회복지실천을 위해서는 불교적인 서비스 방법을 발굴·적용·검증하여 체계화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다. 예컨대, 불교계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약 54%가 불교적인 임상기술이 활용되지 못한다고 보았으며, 필요한 교육내용으로서 프로그램 개발(20%)과 서비스 실천기술(39%)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그러한 내용의 연수교육이 실시될 경우, 참여하겠다는 종사자가 전체의 68%에 이른다.

이미 불교사회복지는 경전으로부터 원론적인 이론의 재구성을 넘어서서 현장에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천기술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장 큰 연구과제가 되어 있다. 물론 그것은 무조건 불교적 특성으로 차별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기술이어야 하는 것이다. 것처럼 이론과 기술을 겸비하여 고유한 하나의 체계를 구축한 가운데서 종사자들이 양성되고, 그들의 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 권위를 인정받으면 전문직 불교사회복지가 되는 것이다. 전문분야가 되려면, 직무를 수행하는 특정기술과 그 바탕이 되는 이론체계가 있어야 하며, 그것을 일정기간 훈련하고 학습하는 교육과정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³⁾

이에 논자는 불교의 사섭법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실천기술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2) 권영구, 「불교사회복지 정체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 불교대학원 석사논문(2007).

3) 김상균 외 8인 공저, 『사회복지개론』(파주: 나남출판, 2007), 495쪽.

것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적용가능할 것인지를 제시할 목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다.

이는 불교사회복지의 고유한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불교계 종사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사회복지 전문가에게도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배운 이론과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학습과제가 될 것이다. 본론은 먼저 사회복지실천이 근거해 온 이론적 배경을 약술하고, 이어서 사섭법이 사회복지 실천기술로서 지니는 가치를 조명할 것이다. 불교라는 특정종교 교화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사섭법이 사회복지 실천기술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사례 적용과 현장에서의 검증을 거쳐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II. 사회복지실천기술의 이론적 배경

1. 인간사회에 관한 지식

사회복지실천(social work practice)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설명하는 심리학이나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사회학을 비롯해서 매우 다양한 인접학문들의 지식이 총망라되어 기초이론을 이룬다.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인간과 사회에 나타나는 각종 문제의 원인과 현상을 해석하거나 예측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그 해결방법을 도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근거에서 인간과 사회를 해석하는 영역의 지식을 ‘사정에 필요한 지식’(assessment

knowledge)⁴⁾이라 부르기도 한다.

사회복지가 처음부터 자기 이론을 정립해가지고 실천에 나서게 된 것은 물론 아니다. 어떤 전문적인 이론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흔히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사회를 개선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대개는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인 개개인의 신념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시작된 자선사업이 대략 1세기를 거치는 동안 전문직 사회복지사업으로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의 경험과 함께 관련이론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20세기 초반 소위 ‘자선의 과학화’⁵⁾를 추구하기 시작하며 사회학적 관점이 도입되었고, 이어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이 크게 각광을 받아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사정—진단—치료하는 의료적 모델로서 진단주의 학파(diagnostic school)를 형성하였다. 당시의 사회복지실천은 개개인을 대상으로 정신분석적 심리치료를 주로 하면서 정신분석가와 동일한 전문직으로 자부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 이전까지 사회복지 분야에서 있어왔던 사회제도 개선이나 개개인들의 사회적응 기능지원과 같은 서비스와 역할이 한 동안 주춤하였지만, 1930년대 미국의 경제대공황을 거치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다시 변화를 맞이하였다. 사회복지사는 크게 둘로 나뉘게 되었는데, 대학원 수준의 전문가와 공공기관의 미숙련 사회복지사가 그것이다.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옛날 방식의 구제와 사회개혁에

4) 김혜란 외 2인 공저, 『사회복지실천기술론』(파주: 나눔출판, 2007), 23쪽 재인용.

5) 윤현숙 외 6인 공저, 『사회복지실천기술론』(서울: 동인출판, 2001), 44쪽.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진단주의 학파에 반대하는 기능주의 학파(functional school)가 나타났다.

진단주의적 인간관은 모든 인간의 내면에 본능적인 충동·욕구가 있음을 상정하는데, 그 중 일찍이 욕구의 지나친 억압을 겪은 개인은 병리적인 심신의 증세를 갖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가 클라이언트의 심리적 억압요인을 진단하고 치료적으로 개입하는 진단주의에 비하면, 기능주의는 개인의 건강한 자아심리를 강조하고 사회복지 전문가는 소정의 사회적 서비스 기능을 할 뿐이라고 보았다. 인간의 과거 경험이 전적으로 오늘을 결정한다고 보는 진단주의의 기계론적 관점과 달리, 기능주의 학파는 인간이 스스로 계속 창조적일 수 있다는 낙관과 긍정적 입장을 표방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관점이 달랐다.

기능주의 학파는 사회복지 전문가의 역할에서 ‘치료’라는 말 대신에 ‘원조과정’(helping process)이라는 용어를 선호했고,⁶⁾ 해당 사회복지사는 소속기관이 제공하는 조건 아래서 클라이언트의 급한 문제에 어느 면 제한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변화를 위한 서비스[문제의 해결]는, 진단주의에서와 같이 소위 전문가인 사회복지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잠재된 본래능력이 주도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의 진단주의와 기능주의 출신 사회복지사들은 같은 기관에서 종사하는 것조차 꺼릴 정도로 대립하기도 했다.

6) 김용일 외 2인 공저, 『사회사업실천론』(서울:나남출판, 1998), 48쪽.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뒤 미국에서는 사회보장법이 국민의 공공 복지를 책임지는 것처럼 안정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수많은 참전 군인들과 중산층 가족들을 중심으로 심리사회적 역기능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치료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 때 개인과 가족, 집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실천방법들이 개발되었고, 그 바탕에는 정신분석이론·행동주의심리이론·의사소통이론·자아심리이론·사회체계이론·생태학적 이론·역할이론·위기이론·실존주의심리이론·인본주의이론·해결중심이론 등등⁷⁾ 수많은 이론들이 있었다. 심리학적 특징을 따라 이론들을 재분류해보면, 첫째 행동주의적·기계론적·실증주의적 심리학과, 둘째로 프로이트 정신분석 계통의 심리학, 셋째로 인본주의 등 제3 세력의 심리학이 있으며, 그리고 제4 세력의 자아초월심리학(Transpersonal psychology)이 있다.⁸⁾ 이 많은 이론들이 출현하게 된 과정이야말로 유럽식 사회보장의 복지국가와 달리 소위 미국식 임상사회사업(clinical social work)의 발달을 가져온 배경이라고 하겠다.

사회복지실천의 다양한 이론들은 요컨대 인간 행동과 그의 사회 환경에 대한 이해와 관점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인간의 성격과 타고난 기질에 주목하거나, 인간의 성장에 있어서 심리사회적 발달단계를 설정하기도 한다. 또 인간내면의 심리보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학습과정을 중시하고, 가족의 상호작용이나 집단의 행동 역동을 분석하며, 지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이해를 요구하

7) 임상사회사업연구회 역, Rachele A. Dorfman, 『臨床社會事業技術論』(서울: 홍익재, 1991), 461쪽.

8) 임은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과주: 양서원, 2005), 165쪽.

기도 한다. 사회복지실천의 지식기반인 제 이론들은 때로 분열되어 서로 경쟁적이기도 하였지만, 오늘날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는 하나 이상의 이론교육과 기술적 절충주의로 통합⁹⁾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2. 복지실천을 위한 지식

앞서 말했듯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관한 이론들이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사정하기(assessment) 위한 근거지식이라면, 다음 단계에서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실제로 개입하기(intervention)에 필요한 응용지식이 있다. 사회복지사가 서비스 실천과정에서 사용할 지식은, 가장 일반적인 사회복지 지식을 비롯하여 자신의 실천분야와 소속기관에 대한 특수한 지식, 자신의 클라이언트에 관한 특수한 지식, 자신의 클라이언트와 특별한 전문적 관계를 맺는 지식 등으로 특화·심화되어 간다.

보편적인 사회복지 지식이란 사회복지사가 모든 활동에서 참고할 만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이론, 문화적 규범, 지역사회 복지정책과 서비스 제도들, 일반적 사회복지실천방법론 등이 그에 속한다. 또, 실천분야에 관한 특수지식이란 사회복지사 자신이 종사하는 해당분야의 실천에 특유한 정보를 의미한다. 사회복지사가 소속한 복지기관의 독특한 목적과 역사, 특성, 방침 등도 그 종사자에게 필요한 특수지식에 해당된다. 예컨대, 사회복지사가 불교계 기관에

9) 임상사회사업연구회 역, 위의 책, 47쪽.

서 일하는 경우 해당기관이 표방하고 있는 불교적 이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성폭력 피해자 쉼터와 같은 긴급보호시설의 경우 지켜야 할 특별한 규칙이 있다. 나아가, 사회복지사로서는 개별 클라이언트의 사회적·심리적·생리적 특징 등을 잘 이해하고, 해당 클라이언트와 효과적인 원조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보편적이고 특수한 실천지식들을 학습하고 이해한 만큼, 사회복지 현장에 그 지식을 적용하고 능수능란하게 발휘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솜씨를 ‘기술’(skill)이라고 부른다. 기술이란 사회복지 이외에도 사람을 돕는 전문직에서 널리 쓰여 온 말로서, ‘행동하는 지식’¹⁰⁾이라고 압축 표현되기도 한다. 이 기술은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에 똑같은 방식으로 수행되는 기법적(technical) 활동과 다르며,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문제-상황의 개별적 특성과 욕구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기술을 취사선택해서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의 특수대상이나 특수문제를 다루는 전문가(specialist)의 실천기술은 여기서 논외로 한다. 일반(generalist)사회복지사로서 학습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가장 기초적인 실천기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즉, 기본원조(basic helping) 기술·관여(engagement) 기술·관찰(observation) 기술의사소통 (communication)기술 등¹¹⁾이 있고, 혹은 관계형성기술·면접과 의사소통기

10) 김인숙·김용석 공역, Cournoyer, B. 『사회복지실천기술 연습』(파주: 나눔출판, 2006), 22쪽 재인용.

11) 김용일 외 2인 공저, 앞의 책, 112쪽.

술·자기생존기술 등¹²⁾으로 나누고, 의사소통기술·질문기술·라포(rapport) 및 관계형성기술·공감(empathy) 및 동정(sympathy)기술·정청기술·탐색기술·부연설명기술·명료화기술·초점유지기술 등¹³⁾으로 세분화하기도 한다. 분류가 조금씩 다르긴 해도 내용상 핵심적인 기술항목을 크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첫째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만남과 동시에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기술이 중요하다. 칼 로저스에 의하면, 성공적인 상담을 위해서 필수요소인 ‘좋은 관계’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온화함과 감정적인 허용과 계획된 통제,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성장을 위한 자유와 해방(freedom)이 보장되는, 아주 특별한 사회적 유대관계¹⁴⁾라고 한다. 첫 면접에서 좋은 느낌을 갖게 된다면 클라이언트가 자기문제를 토로하는데 두려움이 줄고 전문가의 개입을 신뢰하게 되므로 그 이후의 실천과정이 비교적 낙관적일 수 있다.

둘째는, 공감의 기술이다. 바꿔 말하면 감정이입(empathy)과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존중]이라고 하겠는데, ‘Empatheia’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감정이입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공감하여 그 사람과 일치되는 느낌(a feeling of with)의 과정이다.¹⁵⁾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경험에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동참하는 기술이다. 전문가는 서비스의 필요에 의해서 때때로 교육적이거나 지시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클라이언트의 행

12) 이윤로, 『사회복지실천기술론』(서울: 학지사, 2007), 제2,3,4장 참조.

13) 엄명용 외 2인 공저, 『사회복지실천기술의 이해』(서울: 학지사, 2007), 87쪽.

14) 한승호·한성렬 공역, Rogers,C., 『카운슬링의 이론과 실제』(서울: 학지사, 2005), 113-119쪽.

15) 김인숙·김용석 공역, 위의 책, 26쪽.

동을 심판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다.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무조건 공감하고 그의 경험을 진정으로 수용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기술이다. 여기에는 말로써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술과 주의를 기울여 경청하는 기술·필요할 때 적절하게 질문하는 기술·메시지를 명확하게 반응하는 기술·말 이외의 표현을 통해서 감정을 읽거나 소통하는 기술 등이 포함될 것이다. 클라이언트의 상황과 욕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실천의 전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넷째는 사회복지사의 자기 이해와 자기 통제에 관한 기술이다. 사회복지사는 직업적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한 인간이다.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주관적 경험을 먼저 통찰하고, 그것들이 서비스 과정에서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잘 활용할 수 있는 자기 자산이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클라이언트의 다종다양한 생활문제를 원조하는 과정에서는 전문가라도 때로 역기능적인 역할과 소진(burnout)을 경험할 수가 있다. 전문가로서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조화롭게 견지하는 자기관리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기초기술은 사회복지사가 갖고 있는 전문지식을 충분히 활용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므로, 사회복지 자원의 수레가 되고 수레의 윤활유가 될 요소들이다. 이와 같은 의미의 기술들은 보살이 중생을 위해 실천하는 사섭의 방법들과 상통하는 바 있다는 것이 연구자의 관점이고 본론의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는 그에 관한 논의를 한다.

Ⅲ. 사회복지실천 기술로서의 사섭법

1. 사섭법의 기본교의¹⁶⁾

사섭법의 전적(典籍)은 보살의 이타행을 강조하면서 경율론 삼장에 널리 설해지고 있으나, 시기적으로는 대승불교의 성립 이전 대사(大事)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것¹⁷⁾으로 말하기도 한다. 보살은 중생을 교화하며 사섭법에 결코 싫증을 내지 않으며¹⁸⁾ 사섭법은 보살의 정토이며 보살이 성불할 때 접수된 중생들이 해탈하여 그 국토에 태어난다¹⁹⁾고 되어 있다.

일체중생의 행동을 이해하면 모든 중생을 성취할 수 있고 중생을 성취하면 중생에 대한 지혜[智]를 얻을 수 있고, 중생에 대한 지혜를 얻으면 사섭법을 구족하고 사섭법을 구족하면 중생에게 무량한 이익을 줄 수 있다.²⁰⁾

사섭법은 범어로 ‘catvari-samgraha-vastu’²¹⁾라 하여 ‘네 가지의 접수하고 애호하는 일’을 의미한다. 보살이 고통 받는 중생을 접

16) 이 절은 동국대 개교 백주년기념사업회, 『우리말 불교개념어사전』(미간행) 가운데 필자가 작성한 원고의 일부를 인용하고 있음.

17) 이혜숙 역, 森永松信, 『불교사회복지학』(서울: 불교시대사, 1992), 241쪽.

18) 維摩詰所說經 卷下 菩薩行品 제10 (『高麗大藏經』9, 1001b).

19) 維摩詰所說經 卷上 佛國品 제1 (『高麗大藏經』9, 979a).

20) 大方廣佛華嚴經 賢首菩薩品 8의1 (『高麗大藏經』8, 41c).

21) 梵和大辭典 (東京: 講談社, 1978); (전자)불교용어사전(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04) 등

수하여 중생에게 친애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보살을 신뢰하게 하여 나아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네 가지 기본적인 실천방법을 말한다.

한역출전에 따라서는 사섭사(四攝事), 사섭행(四攝行), 사집물(四集物), 사사섭법(四事攝法)이라 하거나 약칭 사섭(四攝)²²⁾이라고도 한다.

첫째, 보시섭은 범어로 *dāna-saṃgraha*라 하며 보시섭사(布施攝事), 보시수섭방편(布施隨攝方便), 수섭방편(隨攝方便)²³⁾ 혹은 혜시(惠施)라고도 한역된다. 그 뜻은 ‘주는 것으로 섭수하는 일’이며, 보살이 욕심 없는 마음으로 중생에게 보시를 하여 교화하는 것이다. 보시의 내용을 재시·법시·무외시로 나누고,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것은 보시하는 마음가짐과 태도인데, 주는 자와 받는 자 그리고 주는 물건(내용)이 본질적으로 공한 것이어서 아무런 집착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소위 출세간보시의 삼륜청정(三輪淸淨)²⁴⁾이나 무주상(無住相)을 가르친다.

둘째, 애어섭은 범어로 ‘*priya-vādita(=vākya)-saṃgraha*’라 하며, 애어섭사(愛語攝事), 애어섭방편(愛語攝方便), 능섭방편(能攝方便) 혹은 애언(愛言)이라고도 번역한다. 그 뜻은 ‘사랑스런 말로 섭수하는 것’이며, 보살이 중생의 안부를 염려하며 온화하게 부드러운 말을 사용함으로써 교화하는 것이다. 자애의 마음에서 진하

22) 이하 사섭법 각각의 한자 동의어나 그 설명은 總合 佛敎大辭典(京都:法藏館, 2005), 544쪽; 望月 佛敎大辭典 第二卷, 1856-1857쪽 등을 참고.

23) 瑜伽師地論 卷38, (『高麗大藏經』15, 794b-c).

24) 大般若波羅密多經 卷74 初分無生品 제21의1 (『高麗大藏經』1, 652b).

는 언어는 상대방이 귀 기울여 듣고 싶도록 친근함과 신뢰를 불러일으키므로 그로부터 중요한 조언이나 안내를 들었을 때, 이해하기가 쉽고 받아들여이기도 쉬울 것은 자명한 이치다.

셋째, 이행섭은 범어로 ‘artha-caryā-saṃgraha’라 하며, 이행섭사(利行攝事), 이익섭(利益攝), 영입방편(令入方便), 도방편(度方便), 이익(利益), 이인(利人)이라고 한역된다. 그 뜻은 ‘이익이 되는 행위로서 섭수하는 것’이라 하며, 보살이 행하는 일들이 중생에게 실제로 이익이 되게 함으로써 괴로움에 빠져 있는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다. 중생의 속성은 항상 자신의 이익을 바라는 까닭에 보살이 중생을 이롭게 하면 친애의 마음이 생겨서 보살에게 의지하고 법을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이다.

중생에게 이로운 무언가를 해준다는 개념과 관련해서는 보시행과 중복되는 감이 있다. 이행이든 보시이든 혹은 애어나 동사까지도, 중생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필요에 부응해서 보살이 베푸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서로 포섭되고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끝으로 동사섭은 samānārthatā-saṃgraha로서 동사섭사(同事攝事), 동사수순방편(同事隨順方便), 수순방편(隨順方便), 수전방편(隨轉方便), 등리(等利), 동리(同利)라고 한다. 그 뜻은 ‘평등하고 동일한 목적으로 함께 하는 일로써 섭수하는 것’이다.

보살이 법안(法眼)으로 중생의 근기를 비추어보고 중생의 하는 일에 똑같이 참여하여 함께 도움을 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교화하는 것이다. 중생이 자신의 현실에 동참하는 보살의 도움을 받으면 친애의 마음을 일으켜 보살에게 의지하게 되어 보살이 전하는 법을 믿고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이 동사섭의 원리이다. 중생이 하

지 말아야 할 일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고, 중생이 바람직한 일을 노력하고 있을 때 보살이 중생과 협력하여 그 옳은 일에 도움이 되게 한다는 개념이다.

이상과 같은 사섭법은 본질적으로 보살이 중생을 돌보고 구제하려는 한량없는 자비의 원리와 그 실천을 밝히는 것으로서, 보시를 근본주제로 하여 애어는 보시의 언어적 표현이며 이행은 보시를 실천하는 방법이고 동사는 보시를 실천하는 입장이라고 해석²⁵⁾하기도 한다. 중생섭수의 네 가지 방법은 각기 별도의 것이 아니라 서로 통하는 하나의 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2. 사섭법의 技術的 의미

사섭법은 보살이 보시·애어·이행·동사의 실천을 통해서 중생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행복한 길에 나아가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것처럼 인간을 행복하게 돕는 방법이라면, 현대의 용어로 말하자면 바로 사회복지실천이 될 것이다. 그런데 사섭법은 모든 이에게 불교교화로써 ‘불교적’ 행복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대로 일반화하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고로 여기서는 사섭법 실천의 가치나 목적이 아니라 그 기술적 의미에 초점을 두려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불교에서는 고통 속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는 가장 이상적인 역할자가 보살이며, 것처럼 원조의 전문가인 보살이 실천해야 할 덕목은 초기경전에서 대승경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로

25) 吉田久一, 『日本社會福祉思想史』(東京: 川島書店, 1989), 제2장 제4절, 140쪽.

제시되어 있다. 그 가운데 사섭법을 보살이 실행하면 중생은 예외 없이 변화[교화] 된다고 하였다.

사회복지는 클라이언트의 행복을 위하여 그 개인에게 필요한 행동의 '변화'나 그 가족·집단·조직·지역사회 등 사회체계와의 관계 '변화'를 유도하는 도움의 전문직²⁶⁾이라고 한다. 사회복지실천의 목적은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하고 바람직한 변화 그 자체인 것이다. 클라이언트에게 중요한 변화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들은 그동안 개발되어온 수많은 이론과 기술을 학습하고 현장에 임한다. 문제는 그 같은 사회복지사의 활동이 클라이언트의 기대와 목적을 어느 정도로 달성시켜주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최초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강조한 피셔²⁷⁾와 함께 1970년대 전후 사회복지기관의 클라이언트들로부터 효과성에 대한 의견들을 구하고 그에 대한 연구와 반성을 하기 시작하였다.²⁸⁾ 전문직 사회복지사의 실천기술들이 검증되었고 대체로 앞장에서 간략히 소개한 바와 같은 기술들이 핵심요소로 알려지고 있다. 유능한 사회복지사의 핵심기술에서 사섭법의 그것과 관련되는 점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보시섭과 도움주는 기술

사회복지의 장에서 클라이언트는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온 사람

26) 서울대 사회복지실천연구회 역, Bradford W. Sheafor, Charles R. Horejsi & Gloria A. Horejsi, 『사회복지실천기법과 지침』(서울: 나남출판, 1998), 163쪽.

27) 정무성,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론』(파주: 학현사, 2005), 32쪽.

28) 장인협 감역, David Howe, 『사회사업이론 입문』(서울: 집문당, 1992), 11-15쪽.

이다. 이 때 도움을 ‘주는’ 기술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비판이 있어왔다.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항상 미덕으로 칭송되지만, 사실은 주는 자의 우월한 자의식을 부풀리고 받는 자를 열등한 지위에 고착시킬 수 있다. 더욱이 도움을 받는 자도 때때로 다른 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무시되고 모든 면에서 가치 없는 사람으로 단정되기도 한다. 심지어, 전문가든 봉사자든, 도움을 주는 일에 병적으로 집착해서 실은 자신을 이롭게 하느라고 남을 돕는 경우도 있다²⁹⁾고 지적한다. 이러한 지적은 특히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에서 전문가 중심주의의 잘못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클라이언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사회복지사의 자기 이해와 자기 통제가 부족한 경우에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거룩한 보살행으로서의 보시와 달리, 현실의 불교사회복지나 일반적 보시의 경우에 불자들의 ‘주는 행위’가 실제로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내밀한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순한 자선(慈善)이 근대적인 사회사업과 동일하지 않다³⁰⁾고 보는 견해나, 소위 ‘의원성 질환’(iatrogenic disease)³¹⁾처럼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전문가의 잘못된 서비스에 의하여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올바르게 도움을 주는 행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 답의 하나는 이미 불교경전의 여기저기에 나와 있다. 요컨대, 전문가[보살]는 클라이언트[중

29) David Brandon, *Zen in the Art of Helping* (N.Y.: Dell Publishing, 1978), 52-53쪽.

30) 孝橋正一, 『社會事業の 基本問題』, (京都: ミネルヴァ 書店, 1988), 74쪽.

31) Ivan Illich가 만든 용어: David Brandon, 위의 책, 32-36쪽.

생]를 최고의 인격체[부처님]로 믿으면서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시방세계 중생들이…… 여러 가지로 차별된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필경 부처님께 공양하듯이 받들고, …보살은 이와 같이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이익 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살이 중생을 수순하면 부처님을 수순하며 공양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모든 부처님은 대비심(大悲心)을 체(體)로 삼으시는 까닭에 중생으로 인하여 대비심을 일으키고 대비로 인하여 보리심(菩提心)을 발하고 보리심으로 인하여 등각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보리(깨달음)는 중생에 속하는 것이고 중생이 없으면 일체보살이 마침내 무상정각을 이룰 수가 없다.³²⁾

위의 가르침을 사회복지실천에 적용하자면,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나 주고받는 내용이나 모두 ‘평등한 마음으로 조건도 집착도 없이 청정하게 주어야 하는’ 것이다. 비록 도덕적으로 평판이 나쁜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주더라도 거룩한 삼보에 공양하듯이 평등하게 해야 할 것이며, 것처럼 청정한 보시가 아닐 때는 바람직한 결과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도움을 받고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것은 사회복지사의 역량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중생)에 속하는 잠재력 덕택이라고 믿으면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

32) 大方廣佛華嚴經 卷40 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高麗大藏經』36, 227b).

2) 애어섭과 대화의 기술

사회복지사업의 발달사를 돌아보면 그 시작이 대개 종교인이나 지역민의 선량한 자선심과 연민이었다. 타인을 돕는 그 마음의 바탕은 자연스럽게 타고난 자애심과 인간가족 공동체의 연대감과 같은 것³³⁾에 있었지만, 점점 시대가 변하고 인간과 사회의 속성이 달라짐에 따라서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도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오늘날 전문적인 원조기술이라는 것도 인간공동체적 우애(友愛)-상호신뢰·공감·의사소통 등-라는 가치를 중시하고 서비스 과정에서 우애를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생각된다. 도움을 주는 입장이든 받는 입장이든, 인간은 누구나 가족과 이웃동료, 사회로부터 이해와 존중을 받으면서 함께 살고 싶다. 생활의 초점은 사랑과 소통에 있다.

사람은 말과 표정·몸짓 등을 통해서 자유롭게 자신의 뜻과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을 때 상호이해와 교감이 생긴다. 사람사이에서 우애는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생기고, 의사소통은 우애를 바탕으로 더 깊어진다. 특히 사회복지실천의 장에서 의사소통의 문제를 돌아보자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말과 감정을 주관적인 왜곡 없이 이해하고, 또한 자신이 말하려는 바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표현하여 클라이언트가 잘 들을 수 있게 하는 의사소통은 결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자기인식의 경향을 먼저 알아차리고 그것이 타인과의 의사소통에서 장애가 되지 않게 하는 내면의 기술이 있어야 한다.

33) Ram Dass & Paul Gorman, *How Can I Help?* (N.Y.: Alfred A. Knopf, 1988), 7쪽.

실제로 사회복지사와 같은 대인 서비스 전문직에서, 예를 들면 사람과 상황을 ‘계획적인 공(空)으로 바라보기’(looking lwith planned Emptiness)³⁴⁾와 주의를 기울여 듣기(경청)와 같은 내면적인 소통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그것은 단지 실용적인 기술훈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과 타인의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마음이 생겨야 가능한 학습이다. 사섭법에서 중생의 변화를 돕는 역할자인 보살은 중생의 모든 차별상을 다 떨쳐버리고 그야말로 편견에서 자유로운 빈 마음으로 중생을 대하고 이끌어 가는 능력이 있으니, 사회사업가로서는 가장 모범적인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이행섭과 평가의 기술

이행섭은 요컨대 교화를 위해서는 중생이 원하고 중생에게 유익한 것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는 보시섭에서도 재물이나 옳은 가르침을 주고 때로는 재해불안과 같은 심리를 해소하여 중생에게 도움을 준다고 이해하였다. 중생에게 필요한 것을 보시하면 그대로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이 될 텐데, 이행섭을 별도로 가르치는 의미는 무엇인가. 보시라면 당연히 이로운 행위라고 여기는 것은 우리가 보시를 하는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이고, 이행섭의 경우는 그 보시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진실로 이로움이 되는가’를 평가하도록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공된 서비스가 그것을 필요로 한 당사자에게 진실로 유익한 것

34) Ruth R. Middleman & Gale Goldberg Wood, *Skills for Direct Practice in Social W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0), 24-26쪽.

인가를 따져보는 평가문제는 사회복지실천에서도 이미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학습된 지식과 전문가의 역량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전문가 중심주의에 대한 반성도 있었다. 사람은 저마다 독특한 생애가 있고 서로 다른 기대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문제를 일반적 틀에 맞추어 진단하고 평균화된 원조를 하는 방법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누구나 본래적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그의 생애를 통해서 발달과 성장의 가능성을 스스로 실현하는 자기결정권³⁵⁾이 보장되어야 한다.

통상 사회복지사들이 실천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나면, 학교에서 배운 이론들과 기술 중에서 가장 옳은 하나의 이론과 효과적인 기술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들이 배워서 써먹고 싶은 이론들보다도 오히려 실천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정보의 중심점은 클라이언트 당사자³⁶⁾라고 보아야 한다. 즉, 사회복지사는 일반적인 지식보다 클라이언트의 특징을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며, 클라이언트 자신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로 변화할 것이며, 그 자신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알고 있으며,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알고 있다.

이것이 전문가 중심주의나 이론 중심주의와 다른 ‘클라이언트 중심주의’의 관점이다. 그러므로 서비스의 효과도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유익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35) 장인협, 『사회사업실천방법론』(상)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24-25쪽.

36) Donald F. Krill, *Practice Wisdom*, (CA: SAGE Pub., 1990), 58-59쪽.

사회복지실천이 이처럼 클라이언트 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최대한 부응하며 최고로 효과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다면, 이는 곧 차만별의 중생상을 보더라도 그 모두에 수순하고 이익 되게 할 수 있는 보살의 능력에 근접한 것이 아닌가 싶다. 거기에는 중생의 다양각색 차별상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기술과 중생의 평등한 본성을 의심 없이 긍정하는 기술과 중생에게 반드시 유익하도록 돕는, 이행섭의 기술이 뒷받침되고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사들은 이미 클라이언트에 대한 ‘수용과 긍정’을 요청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의 기대로 보아서도 유익한지 여부를 우선순위로 삼는 평가기술로서 이행섭을 신봉할 수가 있다면 전문가로서의 능력이 크게 향상·심화될 것이라고 본다.

4) 동사섭과 공감의 기술

그동안 많은 임상전문가들이 유능한 원조자와 효과적인 도움의 요인에 대해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도움을 주는 자의 인간적인 온화함·진실성·감정이입(empathy)·긍정적인 배려·무조건적인 지지 등³⁷⁾과 같은 인품과 덕성이 매우 중요하게 나타났다. 유명한 칼 로저스도 좋은 상담가의 자질로서 인간관계에 민감한 사회적 감수성을 꼽았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경(respect)과 전문가 자신의 취향과 편견에 대한 통찰력, 클라이언트에 대한 계획되고

37) 서울대 사회복지실천연구회 역, 앞의 책, 185-217쪽.

통제된 동일시[공감] 등³⁸⁾을 들고 있다.

물론 원조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모두 다 측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인구대상과 문제의 복합적인 성격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술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특수한 분야마다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기술이 서로 다르더라도, 이른바 유능한 원조자의 촉진적 자질을 갖추면 그 역할이 더 생산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참여자들이 서로를 좋아하고 존중하는 경우, 전문가가 진실하고 따뜻하게 클라이언트의 경험에 공감을 표현하는 경우, 전문가가 클라이언트와 같은 목표지향적 활동에 관여하는 경우³⁹⁾ 등이 그것이다.

위의 설명은 동사섭의 해석을 그대로 사회복지실천의 장에 옮겨 놓은 것 같다. 타인을 변화[교화]시키거나 도우려고 하는 직무라면 무엇보다도 그 타인의 상황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요청된다. 이는 사회복지 교육과정에서 크게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과연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을까. 흔히 전문가들이 자신의 클라이언트와 공감하기는커녕 얼마나 차별적으로 생각하는지를 지적한 마이클 프레인에 의하면, 정서적 제국주의(emotional imperialism)⁴⁰⁾라고까지 말한다. 전문가들이 사회적으로 군림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도덕적인 ‘척’하며, 자신들의 원조를 클라이언트는 당연히 수용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현장의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논자는

38) 한승호·한성열 공역, 앞의 책, 319-321쪽.

39) 김인숙·김용석 공역, 앞의 책, 25-26쪽.

40) David Brandon, 앞의 책, 36쪽, 재인용.

동사섭을 또 하나의 서비스 기술모델로 제안하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중생이 병이 들었으므로 나[보살]도 병이 들었고 중생이 치유되면 나도 치유될 것이다.’⁴¹⁾라는 보살의 서원에서, 보살은 중생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다. 이미 수행의 지위가 있는 보살이 미혹한 중생과 함께 병을 앓는다는 것은 보살과 중생의 차별을 넘어서서 오직 중생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더 나가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중생임에도 불구하고 보살은 마치 여래에게 공양하듯이 중생을 보살피고 수순(隨順)하라는 가르침이 널리 알려져 있다. 수순이라는 의미는 곧 공감하고 동참한다는 뜻이다.

3. 적용을 위한 후속과제

지금까지 논자는 사섭법을 사회복지 실천과정에 유용한 기술로 제안하기 위해서 그 둘의 상호연관성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서두에도 밝혔듯이 사섭법은 불교의 교화를 목적으로 시설(施設)된 교리이며, 본래 수행과 교화에서 기량이 뛰어난 역할자인 보살의 실천방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단정하면 곤란하다. 불교사상을 사회복지에 적용해보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은 언제나 이와 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장적용을 위한 가설로서 이론을 재구성한 다음에는 그 내용을 개별기술로 훈련하거나 하나의 프로그램(단위사업)으로 설계

41) 維摩詰所說經 卷中 (『高麗大藏經』9, 987c).

하여 여러 차례 실험적인 수행과 피드백을 반복해서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결과를 통해서 특히 기술적인 면에서 효과를 입증하면 사회복지 실천기술의 한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근래 어느 기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 프로그램으로 사섭법 중 동사섭이 응용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밖에는 현장의 어디서 활용되는지를 듣지 못하여 아직은 필요한 반응이나 피드백을 구할 수가 없고, 장차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누구든 적극적으로 시도해볼 것을 우선 권하는 입장이다.

논자 역시 기회가 되면 복지기관의 기술개발 프로그램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물론, 기술의 교육과정은 참가자가 불자인 경우와 불자가 아닌 경우를 구분하여 설계되어야 하고, 동사섭 수련의 경우처럼, 사섭법의 각각을 하나씩 집중하여 훈련할 수가 있겠으나, 가능한 네 가지 기술의 상호연관 속에서 동시훈련을 하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IV. 결론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의 가치는 전문가나 전문이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포함한 서비스 대상자들의 욕구와 기대에 따르는 것이다. 또한 도움을 주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 사이에 어떤 권위주의적인 상하관계나 주종관계가 있어서도 안 된다. 그 밖에도 사회복지실천에는 여전히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할 이론적 배경과 기술영역이 남아 있다고 본다. 불교사회복지는 불교의 자체적인 실

천의무로서 요청되는 것임과 동시에 오늘날 사회복지에 새로운 시사점과 대안기술을 제공할 책임을 갖기도 한다. 그 가운데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며, 논자는 불교의 사섭법이야말로 현재의 서비스 기술을 보완하고 심화시켜 줄 시사점을 가진다고 보았다. 다음과 같이 그 논리적 배경을 제시하면서 사섭법이 가지는 사회복지 실천의 기술적 의미를 재구성하였다.

기존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평가연구에 의하면, 효과적인 원조의 핵심요소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상호간에 인간적인 온화함과 신뢰로써 좋은 관계를 맺는 기술·클라이언트의 인격과 상황을 무조건 공감하고 수용하는 기술·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주의 깊게 보내고 받으며 의사소통을 정확히 하는 기술·사회복지사 자신의 경향성을 미리 이해하고 적절히 통제하는 기술로 요약된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과정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수행하고, 효과는 전문가입장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회복지실천의 효과적인 기술론에 비추어볼 때, 사섭법은 사회복지사에게 서비스 기술을 향상시켜줄 만한 시사점들을 제공한다.

즉, 보시섭은 클라이언트의 성장과 변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궁극적인 가능성을 믿으며 평등하게 제대로 주는 기술이다. 애어섭은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를 믿고 자신의 문제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원만히 대화하고 깊이 소통하는 기술이다. 이행섭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

고 그의 기대와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하여 그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원조가 되게 하는 기술이다. 동사섭은 클라이언트의 인격과 상황을 무조건 공감(empathy)하고 수용(acceptance)하여 동등한 입장에서 사회복지사 자신의 경향성이나 전문가적 주도성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원조할 수 있는 기술이다.

사섭법에 대한 서비스 기술로서의 조망은, 향후 사회복지사들에 의해서 반드시 현장적용을 거쳐야 할 것이며, 많은 수행사례와 피드백을 거쳐서 안정된 기술모델이 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 특히 불교사회복지의 실천현장에서는 모쪼록 불교적인 기술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요청이므로 차제에 이론연구자와 현장 종사자들과의 협동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주제어

진단주의 학파(diagnostic school), 기능주의 학파(functional school),
라포(rapport), 감정이입(empathy), 보시섭(giving of all-embracing virtue),
애어섭(affectionate talk of all-embracing virtue),
이행섭(doing others good of all-embracing virtue),
동사섭(engaging in others' matter of all-embracing virtue),
정서적 제국주의(Emotional Imperialism), 의원성 질환(iatrogenic disease)

On the Four All-embracing Virtues as skills of social work practice

Lee, He-sook
Dongguk University

This is a study looking for some service skills from the Four All-Embracing Virtues which can be the uniqueness of buddhist social work as well as complementary of general social work. Many researches proved that the core of effective social work practice is the skill for worker to bring good relationship with the client, skill to show unconditional acceptance and empathy, skill to have profound communication with, skill to control properly worker's own orientation and perspectives. In relation to those points of view I think the Four All-embracing Virtues can guide the workers better ways to help clients in their fields. Because 'Giving' as one of the Four means that Bodhisattva(social

workers) helps the sentient(clients) with all kinds of necessities without any prejudice or discrimination. The 'Affectionate talk' among the Four means that social worker communicates lovely and receptively with clients. The 'Doing good to others' means that social workers can make real good services for their clients' needs. The 'Engaging in other's matter' means that social workers can join in client's situation as if it's their own, have unconditional understanding and respect. With all of these skills social workers can help their clients more effectively as well as thoroughly. One thing remained to move forward is for social workers to try to apply the Four theoretical ideas into their practices on and on, till it is established as a concrete model of service.